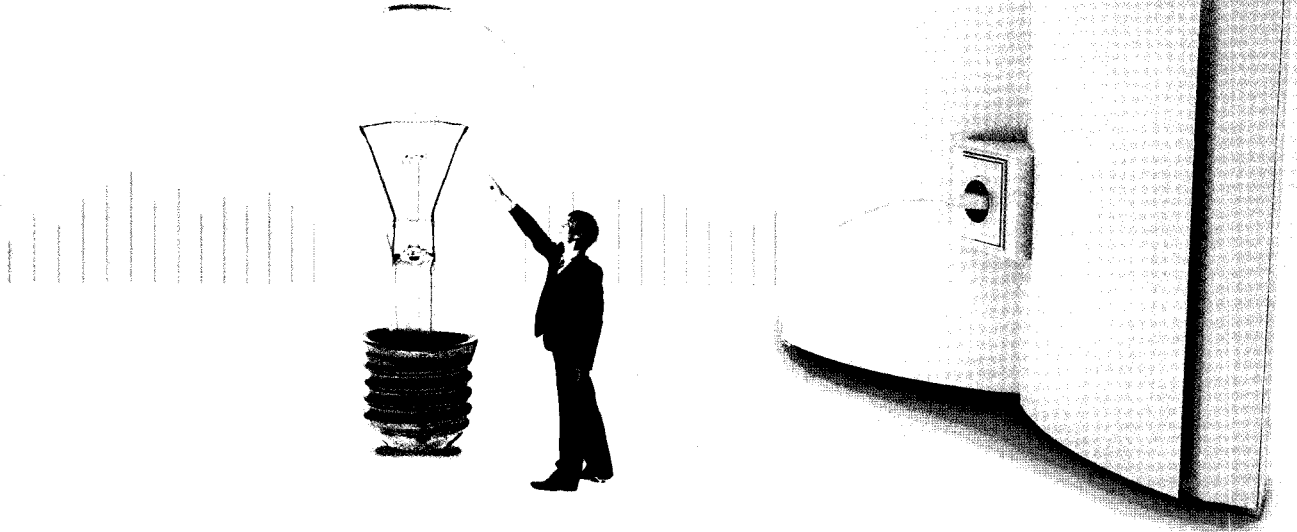


InfoMation

가전제품, 에너지 효율 1등급 비율 10%내외로 축소 조정된다.



전자제품에 대한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이 제품성능 경쟁을 가속화하고, 서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전면 개편된다.

지식경제부는 에너지 효율 1등급 판정기준을 높여 30%를 초과한 주요 가전 제품 1등급 비율을 10%내외로 축소 조정하고, 에너지 효율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비교사이트(가칭 “효율바다”)를 개설하는 한편, 난방용 전열기와 시스템 에어컨의 효율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자제품 에너지 효율향상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금년 11월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후속작업을 본격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적용대상과 시행시기는 전력소비 비중, 1등급 비율, 최근 효율기준 개정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우선 냉장고, 전기 냉난방기(1등급 61%)는 금년 11월까지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가정 전력소비의 17%를 차지하고 있는 TV는 내년 7월부터 세계 최초로 효율등급제 대상에 편입할 계획이다.

또한, 금년 연말까지 주요 가전제품과 자동차에 대한 에너지 효율등급, 연간 에너지비용 정보를 제공하는 전용 사이트가 개설된다. 에너지 효율정보는 정부의 효율정보 제공기능과 민간의 창의력을 서로 조합(組合)한 형태로 추진된다.

정부는 1만 3천여 품목의 가전제품과 승용차에 대한 에너지소비 효율등급과 연간 에너지비용정보를 유사 상품군별로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민간에 공개할 계획이다.



문의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과(02-2110-3942)